

감별사, 그들은 소외되어야 하는가



원 영 민

감별사
전 한미감별학원장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에서 감별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때 양계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지로 그때 당시에 손가락 몇개만으로 자수성가하여 지금 어엿한 양계인 혹은 부화인이 된 감별사들이 도처에 있고 보면 그간 양계업에서 버린 자식 취급을 받아온 감별업계 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진로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 같아 짧은 소견이나마 피력하기로 한다.

호황기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병아리는 부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물량면에선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외국산종계가 수입되면서부터 감별업이 퇴조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수입된 종계의 일부가 색깔감별과 깃털감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기 갈색계란을 선호하는 우리 습성과 다산(多産)을 좋아하는 채란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확산시켜 나갔으며, 지금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화장에서 이들 병아리를 부화하고 있다. 특히 갈색산란계는 노계처분시의 잊점과 색깔을 보면 누구나 선별할 수 있다는 손쉬움 때문에 앞으로도 물량이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 깃털감별품

중요한 현재 하이라인(Hi-Line), 셰이버(Shaver)등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깃털감별 또한 간단한 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부화장에서 감별로 인한 불편은 겪지 않는다.

그러면 감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향문감별은 어떠한가. 경기도지역의 몇몇 부화장외에 지방에는 극소수이며 그나마 물량면에서 위의 품종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유색 30%, 깃털 60%, 향문 10% 정도로 보편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의 약 90%가 감별사의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부화장자체내에서 감별하여 분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10%의 좁은 시장에 감별사들이 밀집해야 할 단 말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웃 일본에서는 색깔이건 깃털이건 또한 향문감별이건 구분없이 3엔씩 주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쪽에서도 구분없이 우리돈으로 10원 정도 주고 있고, 미주쪽에선 깃털은 10원, 향문감별은 20원 정도로 쳐 주고 있다(암컷 1마리당).

물론 그들 나라와 우리가 모든 여건이 같을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감별에 관한 것만큼은 전문직업인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다.

연전에 필자가 대구지역에서

감별교습소를 운영할 때에 여러 곳의 부화장에서 실습재료를 많이 조달해 썼는데 모처에서 자체감별된 깃털숫병아리중에서 상상외로 많은 숫자의 암병아리가 나오는 일이 있었다. 숫병아리 100마리당 4~5마리까지 나왔으니 그때 깃가로 상자당 500~2,000원이 돼지밥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병아리가 발생하는 날은 근처 동네의 아주머니들을 썬 임금에 사서 감별한다고 했다. 그들의 호구지책을 파괴하는 것 같아 부화장측에 애긴 못했지만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었다. 결국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곳에선 깃털감별료를 5원씩 주고 직업감별사를 쓰고 있는 곳도 있다.

직업감별사의 깃털정확도는 99.8~99.9%의 수준이며, 속도는 시간당 대략 3,500~4,000수, 빠른 사람은 6,000수까지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부화장에서 깃털감별을 의뢰할 경우,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암컷 1마리당 5원은 주어야 될 것이다. 감별사를 쓸 경우 그 정도 감별료는 보충이 되겠금 병아리 보호의 측면에서, 또는 단 한마리라도 돼지밥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화장측에 유형무형으로 이익이 되어 줄 것이다.



감별사를 쓸 경우 감별료 정도는 충분히 보상이 되겠금 병아리 보호의 측면에서, 또는 단 한마리라도 돼지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부화장측에 유형무형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으로 감별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육계감별이다. 이것은 비록 감별사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문제이나, 이제는 상호육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그에 대한 홍보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육계감별은 입으로는 많이 거론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감별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육계감별을 시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컸던 까닭으로 아직까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부정적인 요소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육계산업이 그간에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관리자들이 체계적인 원가절감 및 사육방식을 정립시키지 못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원가절감이나 사육방식에 앞서 출하시기만 잘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둘째, 부화장에서 기피현상을 들 수 있다. 부화장측에서 볼 때에 육계를 감별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감별료가 추가되어 추대(雛代)가 높아지고, 한 과정이 추가됨으로써 야기되는 인력 및 시간의 낭비, 암수의 배분문제, 그리고 병아리가 정상적으로 분양이 잘 될 때에는



괜찮지만 공급이 넘쳐 사양가들이 우이나 송중 택일하여 분양을 원할 경우 나머지 한쪽의 처리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의 대부분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양가의 계사시설 및 수용능력의 불균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육자들의 계사구조를 보면 우, 송를 분리사육하기에 불편하게 건축되어 있다.

그밖에 감별시에 오는 스트레스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까닭이 크다 하겠다.

필자가 작년 10월경부터 경북의 몇몇 육계농장과 직접 교섭을 하여 분리사육을 해온 결과, 적어도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분리사육이라 함은 우, 송를 각각 1동씩 혹은 한 계사안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우, 송를 따로 사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리사육을 해 보면 품종에 따라 일정치는 않으나 항상 수

탍이 며칠 빨리 출하체중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계상인들의 말을 빌리면 이 결과로 닭을 잡아 낼 때 이것저것 그를 필요없이 수탍부터 일률적으로 잡아내면 되므로 상당히 편리하다고 하며, 또한 닭장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출하시 닭의 스트레스방지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탍이 다 출하될 무렵이면 암탍이 그 체중에 도달하기 시작하여 출하날짜를 맞추기에 용이한 점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을 먹여서 키워내는 사료의 절감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관리자의 측면에서 볼 때 분리사육의 관리가 혼합사육보다는 훨씬 능률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리사육된 성계를 보면 수탍은 거칠게 자라 있으며, 암탍은 깨끗한 상태로 발육해 있음을 볼 수 있다. 혼합계사시 흔히 볼 수 있는 수탍으로 인해 수난을 겪은 암탍의 흉한 물골은 보기가 힘든 것이